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새해맞이가 벌써 한참 전이었지만 어떤 일인지 여전히 새해의 시작이 지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난데 없이 시작된 지난해 끝자락의 예외상황이 새해까지 이어지면서 새해가 제시관에 맞춰서 시작되지 못하는 듯이 심란하다. 이런 혼란스러움의 위험은 혼란과 불안의 감정으로 번져서 일상을 잠식하고 사람들은 상황 속에 서서히 익숙해진다. 별일 없는 듯,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소식을 나누는 사이에 상황의 본질이 희석되고, 그사이 야금야금 길이 들고 무더진다. 예외적 상황이 분명 '예외'임에도 일상화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삶은 예외 상황 속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 예외는 일상의 단절과 중지를 의미하고 삶은 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예외적인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런데 다행히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예외 상태에 불 수 있는 의미심장한 가능성을 말한다. '억압 받는 자들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예외 상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역사 속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희망을 위한 용기다

에서 나타난 예외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부당하게 일상을 정지시키고, 예외가 정상을 대신하며 광기가 이상을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외가 상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쉽게 길들지 않고, 비정상상을 정상으로 착각하지 않으며, 예외적 상황에 복종하지 않아야 일상의 건강성과 관계의 상호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한 예외 상태가 오히려 '진정한 예외 사태를 도래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예외 상태는 부당한 예외 상태를 무효화하고 거부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문제의 열쇠는 쉽게 길들지 않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익숙한 것에 대한 맹목적 시선과 태도의 변화를 실천하는가에 있다. 익숙한 것만을 옳다고 여기는 습관적 태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본다는 것은 동시에 낯선 것에 개방적인 시선을 획득하는 것을 내포한다. 사실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습관과 선입점으로 보기 쉽다. 습관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것 대신에 익숙한 것만을 골라 보며, 낯선 것은 불편해서 나쁜 것으로 규정하기가 쉽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는 맹목적인 감정입장과 감성주의를 경계하는 태도다. 또한 누군가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눈과 중심을 잃지 않은 객관적 태도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낯설게 보기는 말이 아니고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시대 최고의 사상이 중 한 사람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인생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에 대한 질문에 "말이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라고 답했다. 이토록 간결하고 목직한 한 마디라니!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핵심과 고통의 뿌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서로가 말로써 말을 부정하고, 말이 행동을 낳지 못하는 세상에서 귀하고 절실한 말이다. 바우만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결코 삶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년의 나이에도 기쁨과 희망에 대하여 말한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도 기쁨을 넘어 신명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에게 중한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모르니 타인의 삶을 중하게 여길 리도 없다.

주변에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서가 아니고 객체로, 타인으로 삼아서는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주체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쉽게 필연과 운명으로 여긴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와 미래는 과거부터 준비되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닌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 의해서 선택된 계획과 준비가 현재와 미래가 되는 것이기에 말이다. 지금 무겁고 무거운 마음이라도 올 한해,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는 삶, 소중한 것을 위한 용기를 신명나게 희망하자.

社說

尹측, 현재 흔들기 국가 혼란만 가져올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지난 1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장관서비스부 통해 교류했고,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는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회피 촉구 이유로 들었다. 만약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 편향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현재 현재의 구성이 보수-중도-진보가 각각 3명-2명-3명으로 안배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현재 흔들기가 갑수륙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먼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술이고, 크게는 현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대비해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용 사전 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를 흔들며 보수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앞선다. 하지만 현재 흔들기는 비상 계엄 선포만큼이나 위험한 발상이다. 극한 정치적 감점 대립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완전히 결판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가적 혼란이나 서울서부지법 난동 같은 폭동이 일어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제는 현재에 대한 경제와 비판도 헌법 질서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해야

새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주택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사기에 이어 이번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가 전국에서 터져 나오면서 광주시가 주의보를 발령한 배경이다.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 최근 대구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후 225명으로부터 143억원의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5명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라 사기범들이 새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주를 저지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발기인(투자자) 모집을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광주시에선 2018년 자산동 지역주택조합이 중 분양 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한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입주대행사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이중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125명으로부터 81억원을 감취해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수년간 소송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신종 주택 분양 사기로 악용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가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발빠른 대응으로 반길 일이다. 주의보 발령에 머무지 말고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필요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주택 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도 병행한다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심리를 악용한 범죄를 받은색원 할 수 있다.

無等鼓

영혼의 맛을 느끼게 하는 음식을 '소울 푸드'라고 한다. 식성이나 추억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어머니 손맛이 깃든 음식을 일컫는다. 소울 푸드라는 용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전통 음식에서 유래됐다. 노예제도가 성행하던 시절 백인들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해야 했던 흑인들이 먹었던 음식과 연관이 있다. 잠시나마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었을 음식은 그 자체로 위안을 준다.

거창하게 소울 푸드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한국인이면 좋아 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짜장면이다. 졸업시즌이면 부모님과 중국집에서 먹었던 음식이 짜장면일 만큼, 짜장면은 국민음식이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지 않은 학생이나 서민이 즐겨 찾는 메뉴이기도 하다.

아이들 그룹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에는 짜장면과 연계된 이야기가 나온다. 1999년 발표된 노래는 한 멤버의 유년의 추억을 모티브로 쓰여졌다.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

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웬지 드시길 싫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행편이 넉넉지 않은 탓에 아이는 라면만 먹었던 모양이다. 어느날 아이의 불평에 어머니는 비상금으로 짜장면을 시켜준다. 짜장면 하나에 아이는 행복하지만 어머니는 드시길 않고 짜장면이 싫다고 하는데 당시 노래는 10대 외에 기성세대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가사는 먹

먹한 울림을 줬다. 짜장면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외식 메뉴 중 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짜장면은 2014년 12월 대비 65% 올랐다. 10년 전 4500원에서 7423원으로 상승했는데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평균 80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국마저 어수선한데 불황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짜장면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소식은 쓸쓸함을 준다. 누군가에게 짜장면은 '눈물 젖은 빵'과 같은 음식일 텐데 말이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수필의 향기

나뭇잎 사이로



김향남
수필가

그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빵과 우유를 점심을 먹는다. 일과 일 사이 잠깐의 휴식, 그의 표정은 단정하고 평화로우 보인다. 그의 눈길 닿는 곳에는 나뭇잎들이 모여서 이룬 또 하나의 숲이 있다. 하늘 가운데 파놓은 빛의 연못 같기도 하고, 연못에 일렁이는 부드러운 수초 같기도 하다. 그는 주머니 속 작은 카메라를 꺼내 그 순간을 찍는다. 그 아름다움에, 신성함에, 찬란함에 감전된 듯 얼른 꺼낸 카메라에 초점을 담아 둔다. 늘 보던 풍경이지만 문득 새롭게 다가온 풍경이다. 그것은 삼시각의 황홀이고 벅찬 기쁨이다. 따뜻한 위로이고 넘치는 환대다. 은총이고 자비이며 자유이고 구원이다. 그는 시내 공공화장실을 돌며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며 쓰레기를 치우는 화장실 청소부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 일을 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영화 어디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몇 개의 조각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것기나와, 과거의 그는 지금과는 꼭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부유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는 모든 걸 다 잃고 가족과도 멀어져 혼자 살아가는 처지가

됐을 것이다. 몰락한 그는 어두운 골방에 처박힌 채 불 속불속 세상 끝으로의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부득이 화장실 청소라도 하게 됐을 것이다. 점심때면 간단한 요깃거리 하나 들고 인근의 공원으로 갔을 것이다. 어느 날은 무심코 울려다 본 하늘에서 '코모레비'를 마주했을 것이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 그 틈새를 뚫고 오는 찬란한 빛에 저도 모르게 압도되고 말았을 것이다. 높이 뜬 두 눈을 거쳐 목구멍을, 심장을, 구석구석의 세포를 일시에 관통해 버린 빛의 세레에 흠뻑 젖어 들고 말았을 것이다. 내려왔던 그 빛은 첫 키스처럼 날카롭고 감미롭게 그의 생을 예견해 주었을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삶의 비루함 따윈 깨닫지 못했다. 그 몰입의 순간, 빛과 일사부가 발하는 휘황한 광휘와 함께 어떤 틈입자가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텅 빈 채로도 가득 할 수 있다고 속삭여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는 맨 밑바닥 가장 하층의 오물을 걸어야 하는 노역의 몸을 건너뛰어 지금 여기, 삶의 모든 것을 지그시 끌어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마로 파티(Amor Fati),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일상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고 있으며, 허름한 집과 오래된 테이프와 구식 카메라가 전부인 삶을 살고 있다. 여전히 변변치 못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으며, 문고판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드는 외로운 노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를 동정하거나 비웃을지는 몰라도 부러

워하거나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기만 할까?

영화는 불속 우리에게 묻는다. 그는 전부를 다 잃어버리기만 했을까? 정말로 가난하고 불행하고 남루한 사람이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고 영화는 말한다). 그에게는 여전히 남은 것이 있지 않은가. 오래된 노래와 낡은 책들과 구식 필름 카메라, 그리고 하루하루 살뜰하게 채워가는 일상의 루틴. 그것은 다스곳이 행하는 열렬한 의식처럼 조출하면서도 지고한 풍경으로 우리에게 남는다. 무엇보다도 '코모레비'를 마주하는 순간의 빛나는 환영이 그를 통과할 때, 그는 결코 누구한 사람이 아니다. 찰나의, 그 틈새의 빛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영화 막바지, 그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어둠이 남아 있는 거리를 달리고 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집 앞 자판기에서 꺼낸 캔커피를 마시며 카스테이트이프를 밀어 넣고 울드팜을 듣는다. 그의 얼굴은 웃는 것도 같고 우는 것도 같다. 웃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명명할 수 없는 것들이 겹치고 뒤섞인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농축된 듯 그의 표정은 묘하게 슬프고 묘하게 아름답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

(이 글은 빈 밴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2024)'에 대한 아주 사적인 감상문입니다. '코모레비(木漏り日)'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지칭하는 일본어로 이 영화의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배우 아쿠쇼 코지의 빛나는 연기를 만날 수도 있겠네요.)

기고

4·19혁명과 12·3비상계엄



이병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1960년 4·19혁명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역사다. 국민 주권을 찬탈한 자유당독재 정권의 불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4·19 혁명은 헌법 전문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게 하는 사건으로 반헌법적인 내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이 TV를 통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되고 이에 대해 국회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19혁명은 3·15부정선거와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역사다.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4월 18일 고려대학교 시위 학생들이

자유당 정치강패들에게 테러를 당했고, 4월 19일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다발적인 학생과 시민들 시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186명의 사망자와 60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 4·19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례로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적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사 통치를 시도한 사건이었다.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며 정치적 활동을 금지했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군과 경찰의 저지를 제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결국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이었다면, 12·3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이었다. 특히, 12·3비상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국민 주권을 훼손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12·3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으로 평가된다.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국

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 또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4·19혁명과 12·3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12·3비상계엄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퇴행할 수 있는지를 경고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방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번 쟁취하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송고한 4·19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12·3비상계엄과 같은 반민주적 시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4·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시점에서 있다.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어떤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가 4·19혁명을 통해 얻은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것이 쉽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킨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蔡熙熙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경영지원실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